

# 해외의약뉴스

**항구토제인 메토클로프라미드는 임신부에게 사용할 수 있다.**

의약품정책연구소

## 개요

최근 연구보고에 의하면 임신부에게 항구토제로 사용하는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는 기형아 출산과 태아사망의 위험성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초 3개월 동안 메토클로프라미드에 노출된 28,486명과 그렇지 않은 113,698명을 비교한 결과, 항구토제의 복용은 유산, 사산, 조산, 저체중 또는 태아성장지체의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 키워드

입덧, 임신부, 메토클로프라미드

일반적으로 임신 여성의 50% 이상에서 임신 초기에 메스꺼움과 구토를 경험한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약간의 치료로도 이러한 증상이 조절되지만, 약 10~15% 여성은 탈수와 체중 감소와 같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약물요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임신부들은 항구토제 사용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 입덧의 치료에 사용되었던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가 선천적 기형과 관련성이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탈리도마이드에 의한 비극의 역사는 미국 FDA 기준의 강화와 임신기간 동안 약물 사용에 대한 규제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

Soibhan Dolan 박사<sup>1)</sup>는 임신기간 동안에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장기가 형성되는 임신 초 3개월에는 특히 조심해야 하지만, 메스꺼움이나 구토와 같은 증상을 치료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10월 16일자 Journal of Medical Association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항구토제인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가 입덧의 치료에 있어 효과적이며 안전한 약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40,000명 이상의 여성들이 메토클로프라미드에 노출되었지만 산모들이 선천적 장애(birth defects) 또는 유산의 위험에 직면하지는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공동 연구자인 Bjorn Pasternak<sup>2)</sup>는 이 연구가 임신기 관련 메토클로프라미드의 안전성에 대한 가장 규모 있는 연구로서, 임신부의 메토클로프라미드 복용이 기형아 출산이나 태아사망과 같은 부작용의 위험성을 높이지는 않았다고 보고했다.

1) Associate professor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at Montefiore Medical Center in New York City and medical adviser to the March of Dimes

2) The Statens Serum Institute in Copenhagen

Reglan이라는 제품명으로 팔리고 있는 메토클로프라미드는 임산부들에게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약 중의 하나이다. Reglan은 산성 역류로 인한 속쓰림(heartburn)과 식도염(esophagitis)의 치료제로서 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수술과 항암화학요법(chemotherapy)으로 인한 메스꺼움을 치료하는데도 사용되는 약이다.

Pasternak 연구원은 “임산부의 메스꺼움과 구토를 치료하기 위한 대안이 많지 않다. 또한 약물 치료 반응에 대해 개인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여성들은 한 알의 약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여성들에게는 다른 약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치료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1997년부터 2011년까지 120만 명의 덴마크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임신 초 3개월 동안 메트클로프라미드에 노출된 28,486명과 그렇지 않은 113,698명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항구토제의 복용은 유산, 사산, 조산, 저체중 또는 태아성장지체의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Dolan 박사는 “선천적 기형의 발생은 그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연구로는 약의 안정성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 만약 선천적 기형의 위험이 존재한다면 수십 만 명의 임산부들을 관찰한 대규모 연구가 항구토제와 선천적 기형 위험성 사이의 연관성이나 패턴을 찾을 가능성이 더 높다. 우리는 1997년부터 2011년까지 덴마크의 120만 명의 임산부를 관찰한 결과 메토클로프라미드의 안전성에 대해 재확인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같은 연구결과가 임산부에게 메토클로프라미드 치료를 고려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였다.

#### ■ 원문정보 ■

HealthDay News, Oct 15, 2013

(<http://consumer.healthday.com/disabilities-information-11/misc-birth-defect-news-63/popular-morning-sickness-drug-safe-during-pregnancy-study-finds-681144.html>)